

기독교신여성과 혼인윤리*

- 박인덕을 중심으로 -

이숙진 (이화여자대학교)

I. 머리말

II. 근대 기독교의 혼인윤리

1. 전통혼속에 대한 단절의 윤리
2. 자유연애에 대한 통제의 윤리

III. 박인덕의 착종된 혼인

1. 신여성의 딜레마, 기독교신여성의 트릴레마(trilemma)
2. 박인덕의 혼인을 바라보는 시선들
3. 박인덕의 착종된 혼인생활

IV. 박인덕의 주체적 이혼

V. 맺음말

* 이 논문은 2011년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NRF-2011-35C-A00325)

• ABSTRACT •

Christian New Woman and the Ethics of Marriage in Modern Korea:
Focusing on Park In-Duk

Lee, Sook-Jin

Protestantism introduced various ethical codes of marriage to modern Korea. While protestantism set the patriarchal ethics of marriage against traditional or secular ethics by the rhetoric of discontinuity and the strategy of control, protestant New Women tried to resist and transform them. By lens of marriage, this article aims at exploring the life of protestant New Women, who shattered the gender hierarchy by challenging the patriarchal ethics. The author made a focus on reconstructing the life of Park In-duk, a protestant New Woman, who was conflicted with the protestant patriarchal ethics of marriage, but lived a life different from New Women pursuing love for love's sake. She revealed the structure of gender inequality and shook the gendered landscape by way of choosing the divorce by herself. Park In-duk could resist the patriarchal culture by realizing the fact that she was created in the image of God through a conversion experience, and by realizing that she is a independent woman through modern education. Protestantism played the major role of establishing the patriarchal ethics of marriage in modern Korea by identifying those ethics with God's order. Redescrining the life of Park In-duk, therefore, could be a critical activity to overcome the gender inequality and a channel to reinforce the ethic of human dignity based on the concept of Imago Dei.

Key words: Christian New Woman, Imago Dei, modern education, Park In-duk, patriarchal ethics of marriage

I. 머리말

마침내, 성적 자율권을 법으로 통제하는 시대가 끝날 모양이다. 혼인빙자간음죄가 폐지되고(2009.10) 성윤리를 강제하는 유일한 법인 간통죄가 4차례의 합헌결정(1990, 1993, 2001, 2008) 끝에 또 다시 위헌 여부를 판단 중이다. 2014년 5월 현재, 헌법재판관이 제출한 서면답변서에는 9인의 재판관 중에서 7인이 간통죄 폐지에 전향적인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제도 유지의 대표 진영인 법조계마저, 성(sexuality)의 문제는 그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자율의 영역임을 인정한 셈이다.

변화하는 환경에 기존의 윤리가 부합하지 않을 때 이해당사자의 갈등은 심화된다. 우리사회에서 성문제와 연동된 사안에 대하여 가장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이들은 보수적 개신교인(이하 기독교)과 진보적 여성주의자이다. 간통죄 위헌 소송을 두고 전자는 윤리적 태두리를 벗어나는 성(sexuality)을 강제하던 법이 폐지되면 도덕적 타락은 물론이고 가족의 해체를 촉진시킬 것이라는 깊은 우려를 표명한 반면, 후자는 성적자율권 보장은 시대에 부합하는 결정이라며 지지한다. 근래에는 차별금지법 조항을 두고도 경합하였다. 전자는 독소조항 ‘삭제’를 외치며 저항하였고, 후자는 7개조항의 ‘삭제반대’를 외치며 차별에도 위계를 둔다며 분노하였다. 가족해체의 시대적 징후에 대해서도 상반된 윤리적 입장을 취한다. 전자는 신가부장의 권위 확립과 가족윤리의 수호를 위하여 아버지재교육 프로그램 등을 적극적으로 계발하지만, 후자는 ‘가부장적’ 가족의 해체와 ‘다양한’ 가족모형을 통한 새로운 가족윤리를 제안한다. 이렇듯 보수 기독교 진영과 여성주의 진영은 성·사랑·혼인에 관련된 다양한 사안을 두고 윤리적 준거가 되기 위하여 경합하고 있다.

한국 기독교는 수용초기부터 사회적 편입의 한 통로인 ‘혼인’에 관심하며, 혼인윤리의 새로운 준거를 위하여 노력하였다. 그 과정에서 전통혼속

과 그 혼인윤리에 대해서는 단절의 윤리를, 새로이 밀려들어오는 세속적 혼인문화와 그 윤리에 대해서는 통제의 윤리로 대응하였다. 단절과 통제의 혼인윤리를 통해 신앙공동체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신앙적 정체성에 기초한 윤리적 틀을 제시하면서 이상적 신앙인 가정모델을 구축한 것이다. 한편 여성들은 근대적 교육공간을 통하여 근대적 ‘주체의식’을 함양하고, 복음을 통하여 이마고 데이(Imago Dei)로서의 ‘신앙적 정체성’을 깨달았다. 요컨대 기독교계 신여성(이하 ‘기독교신여성’)이라는 새로운 주체가 탄생한 것이다. ‘기독교’와 ‘근대’의 세례를 동시에 받은 이들은 당대 기독교의 가부장적 그물망에 포획되기도 하고 때로는 저항함으로써 그물 밖으로 탈주하기도 하였다.

이 글의 목적은 기독교의 가부장적 윤리와 경합하는 가운데 한국의 젠더지형에 영향을 끼친 기독교신여성의 삶의 자리를 ‘혼인’의 렌즈로 조망하는데 있다. 구체적인 사례연구를 위하여 ‘신앙인’이었으나 기독교 가부장적 혼인윤리와 갈등하고, ‘신여성’이었으나 당대를 풍미했던 연애지상주의자와는 다른 행보를 걸었던 박인덕의 삶의 궤적을 추적한다.

박인덕(1896-1980)은 교육자, 지식인, 신앙인, 연설가, 계몽운동가, 여성운동가로서 수많은 ‘최초’를 기록하면서 한국 근현대사에 큰 족적을 남긴 대표적인 기독교신여성이다. 그의 혼인을 연구사례로 선택한 것은 삼종지도와 여필종부가 여전히 여성의 주요덕목이었던 20세기 초반에, ‘여사이면서도’ 이혼을 주도적으로 결정함으로써 젠더불평등의 상황을 문제화하고 젠더담론의 지형에 끼친 영향력 때문이다. 혼인을 둘러싼 그의 삶의 궤적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당대 기독교 혼인윤리의 가부장성과 기독교신여성들의 불안하고도 불편한 삶의 자리가 드러날 것이다. 이러한 작업은 전근대와 근대의 혼인윤리가 중첩된 혼돈의 시대를 살았던 한 기독교신여성이 가부장적 통제의 윤리망을 뚫고 탈주한 지점은 어디인지,

가부장적 윤리를 위반한 그의 착종된 결혼과 주체적 이혼의 의미는 무엇인지, 그의 행위가 한국사회의 젠더 지형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왔으며 기독교여성윤리의 지평에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성찰하는 것으로 이어진다.

II. 근대 기독교의 혼인윤리

이 장에서는 기독교신여성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근대기독교 혼인윤리에 관심을 둔다. 기독교 혼인윤리의 윤곽은 당대의 혼속들과 경합하는 가운데 뚜렷하게 드러났다. 당시 기독교가 대결하였던 혼속은 조혼, 축첩, 자유연애로 요약할 수 있다. 교회는 전통혼속과는 ‘단절’을, 자유연애를 추구하던 교인들에게는 ‘통제’의 윤리적 실천을 촉구했다. 이 글에서는 당대의 지배적인 혼속과 기독교의 대결지점들을 드러냄으로써 혼인을 둘러싼 단절과 통제의 윤리적 준거는 무엇인지, 그 효과는 무엇인지를 구명한다.

1. 전통혼속에 대한 단절의 윤리

초기 기독교는 선교의 일환으로 미신타파, 우상파타, 구습타파의 슬로건을 내세워 전근대적 전통혼속을 비판하고 이의 철폐를 주장하였다. 신앙인들에게는 ‘정죄와 권고’를 통해 전통혼속과의 단절을 실행하도록 압박하였다. 조혼과 축첩을 행한 교인에 대해서는 정죄하거나 출교함으로써 기독교혼인윤리의 준거를 제시하고 신앙공동체의 정체성을 확립하였다.

기독교가 비판했던 조혼은 대체로 15세 미만의 혼인을 뜻한다. 이는

1920년대의 법적 허혼연령을 통해 추정한 것인데, 실제로는 열 살 미만 아동의 혼인이 허다했다는 증거는 많다. 신랑신부의 연령을 합하여 14세에 지나지 않는다는 보도¹⁾ 및 8세 때 혼인하였으나 아들을 낳지 못해 쫓겨난 소녀가 등장하는 선교소설 *Kim Subang*²⁾은 대표적인 사례이다. 진보적 기독교 지식인 신홍우는 만연했던 조혼의 비윤리성을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 여자를 택하여 노예처럼 부리고자 하고 또는 금전이나 문벌에 취(醉)하여 남자나 여자나 서로 어떨지 생각지도 않고 부모들의 마음대로 혼인을 하였 습니다. 이 같은 혼인의 결과로 남자는 다른 여자를 찾게 되어 첩도 얻고 불행에 떨어집니다. 그리고 여자는 후방마누라가 되게 됩니다. 어찌 이 같은 불안 불평 부패한 가정을 건전하다 하겠습니까?”³⁾

조혼과의 단절의 당위성과 윤리적 정당성을 함축하고 있는 이 글에 따르면, 조혼이 비윤리적인 혼속인 이유는 노동력을 매매하거나 부와 권력을 얻는 수단으로 전락하였기 때문이다. 매매혼과 연동된 조혼에 대한 비판담론은 개항기부터 기독교 매체를 통해 유통되었는데, 주로 매매혼의 비윤리성을 고발하고, 교인들에게 단절의 윤리적 결단을 촉구하는 형식이였다.⁴⁾ 또한 당사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부모(가문)에 의해 혼사가

-
- 1) '사설: 조선교회의 칠난-제7 혼인난', 기독교신보, 1917년 9월 26일자.
 - 2) Ellasue C. Wagner, *Kim Subang*, (Nashville: Woman's Board of Foreign Mission M.E. Church, South, 1909) 『김서방』은 와그너가 선교현장에서 만난 여성들의 이야기를 토대로 쓴 소설이다.
 - 3) 신홍우, 「가정과 연애」, 조선기독교청년회, 『청년』2권 7호, 1922.
 - 4) '교회통신: 평양래신', 그리스도신문, 1906년 9월 3일자에는 열 한 살의 딸을 팔아서 머느리를 사려던 부부가 신앙인이 된 후 비로서 자식을 사고파는 일이 악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사례가 소개되고 있다. 매매혼 비판기사는 다음의 교계신문 기사에서 찾을 수 있다. '교회통신-부산래신', 그리스도신문, 1906년 1월 11일자; '혼인론', 조선크리스도인회보, 1899년 4월 19일자; '년환희덕행규칙', 신학월보, 1권 1호, 1900년 12월

결정된다는 점도 비윤리적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유교사회에서 결혼의 목적은 위로는 조상을 받들고 아래로는 가문을 빛낼 후사를 생산하는 데 있다. 유교의 혼사는 “두 집안이 합하여 만복의 근원”을 이루는 것이기에 개인과 개인의 결합이기보다 집안과 집안의 의미가 크다.⁵⁾ 이러한 관점에서는 가문이나 부모의 결정에 따른 조혼은 윤리적이지만, 당사자의 의사가 최우선적인 연애결혼은 패륜이다. 반면 기독교는 주체들 간의 자유로운 계약에 입각하여 “당사자 간의 대면 후 가부를 정하는”⁶⁾ 근대적 혼인을 권면하면서, 당사자의 의사와 행복이 간과된 조혼을 비윤리적이라고 폄하하였다. 당사자의 의사가 무시된 혼인은 훗날 “첩을 얻어” 혼인의 순결성을 잃게 되고, 아내를 “후방마누라”로 전락시켜 가정불화가 생길 여지가 농후하다는 것이다. “중국여인의 전족보다 더 야만스런 풍속”⁷⁾으로 간주된 조혼은 전근대의 표상이었다. 기독교는 제대로 성장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성생활은 허약한 자녀를 출산하게 된다는 근대 우생학적 지식을 적극 활용하였다. 영육이 미성숙한 부모를 양산하는 조혼은 부국강병의 걸림돌이 되는 반민족적 반사회적인 혼속이라는 논리로 이어졌다.⁸⁾

조혼의 비윤리성을 부각하기 위하여 때로는 신앙의 언어와 수사가 동원되었다. 선교사 스크랜튼은 조혼으로 인해 “음란 풍속을 조성하게 되어 다른 민족의 무시와 하느님의 미움을 받아 나라가 멸망할 것”이라고 강변하였다.⁹⁾ 게다가 신앙인이 “마귀에게 붙은 자가 행하는 일”인 조혼을 방조하거나 권한다면, 불신자보다 그 죄가 크다고 공포심을 활용하기도 하였다.¹⁰⁾ 이처럼 근대기독교는 조혼으로부터 단절의 윤리적 실천을 촉구

자: '혼인문답', 그리스도신문, 1901년 8월 8일자 등.

5) 이숙진, 「근대초기 '여권'의 유입과 유교의 재구성」, 『국학연구』24집, 2014. 198.

6) '결혼하여 두는 약속', 그리스도신문, 1902년 4월10일자

7) 윤치호, '대한자강회연설', 황성신문, 1906년 7월 23일자

8) '혼인문답', 그리스도신문, 1901년 8월 8일자

9) 스크랜튼, '조혼의 폐단', 그리스도회보, 1911년 3월 30일자

함으로써 기독교 혼인윤리를 구축하고 외부와는 구별된 순수한 신앙공동체를 세우고자 하였다.

축첩역시 단절해야할 전통혼속으로 지목되었다. 당시의 축첩문화는 평민 남성에게까지 퍼져있어서, 매끼 밥을 먹을 수 없는 형편의 남자도 첩을 둘 정도였다. 10년 이상 사실혼 관계의 첩이 있는 공직자는 5명당 1명 꼴이었는데, 만약 10년 이하의 사실혼 관계를 포함한다면 축첩자는 훨씬 늘어날 것은 자명하다. 그런데 문명개화론을 주창하던 남성지식인들의 축첩 비판에 대한 태도는 조혼비판에 비하여 소극적이었다. 아마도 전통혼속에서 자유롭지 못했던 남성지식인의 대부분이 조혼의 피해자이자 축첩의 가해자였던 탓일 터였다.¹¹⁾

이와 달리 기독교 진영에서는 오히려 축첩에 대해 훨씬 강경한 태도였다. 교회법상 금지된 조혼자를 실제로 출교한 경우는 없었으나, 축첩자는 절대로 신앙공동체의 일원이 될 수가 없었다. 만연된 축첩문화와 맞서 기독교는 신·구약성서를 준거로 하여 간음, 일부다처, 순결위반과 불가분의 관계인 축첩의 반윤리성을 폭로한다. 특히 선교사들이 주도적으로 축첩을 행한 자의 출교를 강하게 주장하였는데,¹²⁾ 일부일처제를 하나님의 법으로 믿은 베어드는 축첩이야말로 하나님의 질서를 교란하는 혼속임을 강하게 경고하였다. 사실상의 일부다처제인 축첩자의 가정은 순결하지 못하며, 축첩자는 신약의 가르침(벧전 4:7)에 따라 살수 없기 때문에 기독교 혼인윤리에 위배된다는 것이다.¹³⁾

축첩 여부는 성도와 외인을 가르는 중요한 기준이었고, 축첩과의 단절

10) '결혼하여 두는 악습', 그리스도신문, 1902년 4월10일자

11) 조은, 조성윤, 「한말서울지역 첩의 존재양식: 한성부 호적을 중심으로」, 『사회와 역사』 65권, 2004. 82-87.

12) 이숙진, 「초기 기독교의 혼인담론」, 『한국 기독교와 역사』32호, 2010, 45.

13) William, M. Baird, "Should Polygamists be admitted to the Christian Church III", *The Korean Repository* Sep. 1896. 262.

은 신앙적 정체성을 강화하는 중요한 통로였다. 그리하여 교인 중에서 축첩자들은 ‘외인(外人)’으로 간주되어 신앙공동체에서 배제되었다.¹⁴⁾

이처럼 근대 기독교는 조혼과 축첩 등의 전통 혼인관습을 야만적이고 반신앙적이며, 반윤리적인 악습으로 지목하고 단죄하였다. 신앙인에게는 혼속과의 단절을 실천하도록 압박함으로써 기독교의 혼인윤리를 정초하고자 하였다.

2. 자유연애에 대한 통제의 윤리

갑오개혁을 비롯한 근대적 제도개혁안에는 혼인개혁의 항목이 들어있다. 그러나 혼인의 장기 지속적 특성으로 인해 개혁안은 일제강점기 내내 온전히 실천되지 못했다. 그 결과 근대 기독교는 오랫동안 조혼과 축첩 등의 전통혼속과 대결하였고, 그 와중에 새로이 유입된 연애에 기초한 혼인풍조와 경합하였다.

1920년대는 연애결혼과 자유이혼에 관련한 담론들이 무성하였다. 사랑에 기초한 혼인은 근대지식인의 로망이었으나 실현하기에는 시대의 벽이 높았다. “당시 이화졸업생의 상대가 될 만한 남자들은 거의 조혼을 해버린 처지”¹⁵⁾일 정도로 전통혼속의 뿌리는 깊었기 때문이다. 자유연애를 동경한 남성지식인 대부분은 조혼자이면서도 “사랑이 바탕이 된 결혼을 해야 한다는 주장을 핑계로 못된 신식바람에 들어” 연애소동을 일으키곤 하였다.¹⁶⁾ 그러한 시대적 배경에서 탄생한 착종된 존재가 제이부인(第

14) 감리교의 경우는 1894년에 선교사들이 만장일치로 첩을 둔 자의 입교를 불허하고, 장로교의 경우도 1897년 축첩자의 입교금지 결정을 내렸다. 이숙진, 앞의 글, 참조 William, M. Baird, “Should Polygamists be admitted to the Christian Church II,” *The Korean Repository*(Aug, 1896), 229.

15) 김정옥, 『이모님 김활란』(서울: 정우사, 1977), 88.

16) 김정옥, 같은 책.

二婦人)이다.

제이부인이란 1920년대에 등장한 신조어로, 기혼자와 법적 인정을 받지 못한 혼인관계를 맺은 신여성을 지칭한다. 근대교육을 받은 신여성들이 제이부인이 된 일차적 요인은 전근대와 근대의 혼속이 착종된 시대적 한계로 보아야 옳다. 물론 모두가 제이부인의 존재양식을 택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들의 회박한 윤리의식의 닷하는 견해도 있다. 비슷한 처지의 기독교신여성들은 독신의 삶의 선택할지언정 제이부인의 존재양식을 경계했다. “제이부인을 마치 지순한 사랑을 선택한 자”로 긍정하는 열풍을 비판하면서, “그런 기만 행동과 진정한 연애와는 엄정히 구별해야” 한다는 김활란의 발언은 신앙인 여성들의 시선을 반영한다.¹⁷⁾

1920년대 기독교 공간은 자유연애의 열풍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다. 당시 예배당은 연애당이라는 별칭이 말해주듯 남녀교제가 자연스레 이루어진 거의 유일한 공간이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당시 기독교는 혼인윤리를 두고 양 진영으로 대립하고 있었다. 청년문화를 주도하던 기독교 진보진영에서는 연애가 동반되지 않은 혼인은 개성(個性)을 무시하는 일종의 죄악으로 간주하면서, 연애결혼이야말로 하느님의 질서에 적합한 형식임을 강조하였다.¹⁸⁾ 새로운 혼인윤리는 자유연애결혼과 평등한 부부관계를 꿈꾸는 신여성들과 기독교 지식인들에 의해 정초되었다. 반면 보수진영은 연애결혼이 이혼으로 귀결되기 마련이라며¹⁹⁾ 연애불가론을 주장하였다. “비록 이상에 맞지 않더라도 무너져가는 가정 윤리를 다시 세워서 하나님의 가정이 더욱 많이 지어지도록 노력”²⁰⁾하도록 고무시키는 한편, 여성해방사상을 “조야하고 풍기문란을 조장”²¹⁾한다는 이유로

17) 김활란, 「사이비 연애행동」, 『신여성』, 1933. 2, 20-21

18) '사설: 리혼문제의 원인과 예방', 기독교신보, 1926년 7월 7일자.

19) '사설: 이혼에 대하여', 기독교신보, 1930년 8월 27일자.

20) '사설: 이혼에 대하여', 기독교신보, 1930년 8월 27일자.

불은시하면서 자유연애에 대한 통제의 윤리적 정당성을 찾았던 것이다.

자유연애를 두고 벌어진 두 진영의 갈등은 가부장적 혼인윤리가 헤게모니를 획득하면서 진정되었다. 힘의 균형이 깨진 것은 1930년대로 접어들면서 식민당국의 강력한 보수화 경향과 맞물려 진보진영의 입지가 좁아졌기 때문이다. 기독교인의 이혼율이 비기독교인에 비해 높은데²¹⁾ 진보적인 기독교 인사들의 이혼현상이 증가하면서 연애문화를 지지하던 진보진영의 논리는 힘을 잃었다. 헤게모니를 장악한 보수진영은 교회로 밀려오는 자유연애와 신평조의 도도한 물결로부터 ‘참다운 신자’들을 보호하고자 부단히 노력하였다. 선교의 장에서는 갈등관계였던 유교가부장주의와 공모하여 신여성들을 가부장적 가정으로 회귀시키고,²²⁾ 종교적 수사로 성적 자율권을 통제하는 노력을 기울이면서 기독교 혼인윤리의 가부장적 특성은 강화되었다.

III. 박인덕의 착종된 혼인

이 장에서는 ‘기독교인’이었으나 기독교 가부장적 혼인윤리와 갈등하고, ‘신여성’이었으나 당대를 풍미했던 연애지상주의자와는 다른 행보를 걸었던 기독교 신여성의 삶의 자리를 조망하기 위하여 박인덕의 삶의 궤적을 추적한다.

박인덕²⁴⁾의 기독교신여성 정체성의 형성과정을 간략하게 살펴보자.

21) 김응순, ‘여자교육에 대하여’, 기독교신보, 1923년 1월 17일자.

22) ‘사설: 리혼은 신약의 절대부인’, 기독교신보, 1926년 3월 3일자.

23) 이숙진, 『한국기독교와 여성정체성』(서울: 한들, 2006), 184.

24) 박인덕의 이력은 다음과 같다. 평남 출생(1896), 진남포 삼승학교 졸업(1907), 이화학당 대학과 졸업(1916), 교사생활 중 만세시위로 수감(1919), 결혼(1921)과 동시에 배화여고보 및 협성여자신학교교사, 미국유학(1926), 웨슬리안 칼리지 학사(1928), 해외학생자원운동 순회강사(1928-1930), 콜롬비아대 석사(1930), 유럽강연(1931), 귀국과 동

그는 어린 시절부터 교회와 기독교 문화의 자장 속에서 살았고 회심한 세례교인이었다. 남편과 아들을 잃고 새로운 삶을 기독교에서 찾은 그의 어머니는 '교육'이 더 넓은 세상으로 인도하는 불빛임을 깨달았다.²⁵⁾ 그러나 동네의 유일한 교육기관인 서당은 남자아이에게만 열려져 있었다. 개화의 거센 바람은 불고 있었지만 여전히 남녀칠세부동석의 예법이 남아 있던 시절, 박인덕은 서당교육을 받기 위하여 '여성적 기표'를 감추었다. 검정 바지를 입고 남자아이 스타일로 머리를 깎아 검정 땀기로 묶었을 뿐 아니라 여자 이름인 '임덕(姪德)' 대신 남성적 이름인 '인덕'으로 개명²⁶⁾ 하는 등, 여성적 이미지를 지웠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여성적 기호를 삭제함으로써 주류사회에 편입하고자 하였던 사례는 빈번하게 발견된다.²⁷⁾ 여성의 몸에 열등성을 부과했던 가부장적 사회를 돌파하기 위한 여성들의 전략의 하나였다.

그런데 기독교는 여성적 기표를 감추지 않고도 여성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장을 제공하였다. 그는 황해도 진남포의 삼승여학교²⁸⁾에서 “영혼의 양식이 되었던 생명의 말씀”을 처음 만났으며, 이화학당에 진학한 후 선교사의 지원으로 자신의 잠재력을 십분 발휘하였다. 이화학당에서 교사생활을 하던 중 학생들을 선동했다는 죄목으로 수개월 수감되었고,²⁹⁾

시에 이혼(1931), 미국강연(1935-37), 덕화여숙설립, 도미강연(1950-1962), 인덕학원설립(1962), 별세(1980)

25) 박인덕·최연화·채선수·허윤기 역, 『구월 원숭이』(서울: 인덕대학교 출판부, 2007), 44.

26) 위의 책, 23.

27) 여성의 몸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교리의 영향으로 중세 기독교여성들은 종종 '남장'과 금식으로 여성적 몸을 지우려고 했다. 1세대 페미니스트들 역시 사회적 활동을 위해 남장을 선호했으며, 중국고사에 등장하는 여성장수도 참전하기 위하여 남장을 했다.

28) 김옥동, 「박인덕의 전기와 관련한 오류」, 서강대학교동아연구소, 『동아연구』, 2011. 45-46.

29) '이화학당은 교사가 피착', 신한민보, 1919년 7월 26일자.

애국부인회 사건으로 다시 투옥당하는 등 20대에는 민족운동에 적극 관여하였다. 출옥후 정치투쟁보다는 “기독교적 인내를 통해 하나님의 도움으로”³⁰⁾ 민족문제를 해결하려는 입장으로 선회함으로써 개량적 식민지 기독교인의 행보를 걸었다. 신앙체험으로 개인의 자유와 인격의 신성함을 깨달은 후 가부장적 윤리에 부단히 저항한 그에게 기독교는 현실도피의 공간이 아니라 끊임없이 그 자신을 윤리적 주체로 호명하는 종교였다.

1. 신여성의 딜레마, 기독교신여성의 트릴레마(trilemma)

한국여성의 근대교육을 이끌었던 미국선교부는 복음화를 위해서 여성교육의 확대에 총력을 기울였다. 그 노력의 하나가 남학교와 여학교 건립을 동수로 하기로 한 선교교육정책이다. 그 결과 신여성들은 늘어났지만 졸업 후 이들 앞에 놓은 현실은 암담했다. 식민지여성에게 주어진 직업도 마땅하지 않았고, 혼인공간은 몹시 협소했다. 적합한 결혼상대자들이 이미 조혼한 상태에서 신여성에게 마련된 혼인공간은 “생면부지의 한 남자에게 시집가서 시어머니의 휘하에서 생활하며 시어미 버선 짝이나 꿰매” 거나³¹⁾, 사랑하는 사람의 '제이부인'이 되는 길 밖에 없었던 것이다. 자유연애사상은 봉건윤리를 해체하는데 파괴적인 도구였으나, 이를 온전히 실현할 수 없는 시대의 한계는 신여성들을 봉건 속으로 포박했다.

기독교신여성은 신여성들이 직면한 딜레마에 교회의 윤리적 통제까지 더해진 트릴레마(trilemma)에 봉착했다. 교회에서 금지하는 제이부인이 될 수도, 믿음 없는 유교가부장적 가정으로 회귀할 수도 없었던 그들은 제3의 삶의 양식을 선택했다. 그 중 하나가 독신이다. 요컨대 기독교신여성에게 독신은 봉건적 혼인의 굴레에 포박되지 않으면서 교회의 혼인윤

30) 박인덕, 앞의 책, 70.

31) 편집인, 「신여성과 결혼하면」, 『별건곤』, 1927년 12월호.

리에도 위배되지 않는 존재방식으로 선호되었다. 중세 여성신비가들이 그러했듯이 가부장적 질서에 포박되지 않고 자신의 잠재력을 발휘하려는 여성들이 선택하는 전형적인 삶의 방식이 독신이다. 김활란을 비롯한 근대여성 지도자들이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며 한국여성의 아이콘이 되었던 것은 독신의 삶이기에 가능한 측면이 있다. 결혼한 여성이 감수해야 하는 의무로부터 자유로웠을 뿐만 아니라, 배타적인 가족올타리에 갇히지 않음으로써 남성지식인들의 배려와 도움을 쉽게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독신여성의 삶이 녹록했던 것 같지는 않다. 유교의 지배력이 여전한 당시 유교혼인윤리의 잣대에서는 독신은 반윤리적 존재방식이었기 때문이다. 헐버트는 “한국에서는 노처녀란 없다. 시집을 못가고 스무 살이 넘으면 남의 손가락질을 받는다”³²⁾는 것을 목격했고, 내한당시 독신이었던 셔우드(R. Sherwood)는 기생·비구니·장애인도 아니면서 독신인 이유를 매번 궁색하게 설명해야 했다.³³⁾ 한국에서 독신여성의 삶이 얼마나 불편하고 불안한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에피소드이다. 이러한 분위기임에도 교육 선교사들은 똑똑한 제자들에게 독신을 권유했다.³⁴⁾ 가정과 일을 양립할 수 없는 심각한 젠더불평등의 한국사회에서는 독신의 삶이 유리하다고 판단했던 것 같다. 당당한 주체로 사는 선교사 선생님의 삶을 동경하던 제자들은 권유를 받아들임으로써 새로운 여성주체가 되었다. 독신여성은 증가하였지만, 대중의 편견은 여전했다. 당시 매체들이 재현한 그들의 표상은 “히스테리를 부리는 성질 나쁜 노처녀”였고³⁵⁾ “이상실현을 위해서 독신이 된 것처럼 말하지만 실제로는 속사정이 있을

32) 헐버트, 신복룡 역, 『대한제국명망사』(서울: 평민사, 1984), 343.

33) 셔우드 홀, 김동열 역, 『닥터홀의 조선회상』(서울: 좋은씨앗, 2009), 335.

34) 민숙현/박해경, 『한가람 봄바람에: 梨花100年野史』(서울: 지인사, 1981), 398.

35) 김활란과 인터뷰 후, 기자는 여느 노처녀들과 달리 그가 히스테릭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그 에필로그는 결과적으로 노처녀들이 히스테릭하다는 고정관념을 유통시키는데 큰 기여를 하였다.

것”이라는 편견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다.³⁶⁾ 더 심한 경우는 ‘성적문란’ 혐의를 받기도 했는데 이화학당장 김활란마저도 곤경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성적 추문’이라는 의미코드는 단지 의혹만으로도 독신신여성을 폄하하고 매장하는데 효과적인 올무였다.³⁷⁾

기독교신여성이 독신보다 더 선호한 존재방식은 이상적인 기독교 가정의 주부였다. 선교사 노블부인은 신앙인 가정의 모델로, 부부가 사랑으로 교제하고 자녀들을 바르게 훈육하며, 이웃에게 너그러이 베풀고 섬기며, 교회의 절기를 잘 준수하는 가정을 제시한다.³⁸⁾ 그러나 선교사들이 목격한 전형적인 부부 모습은, “남자들이 식사 후 물린 음식을 받아먹고,³⁹⁾ “앞장 선 남편을 마치 개처럼 2야드 뒤에서 따라가는 아내⁴⁰⁾의 풍경이 말해주듯 철저히 젠더 위계적이었다. 이러한 악습이 부덕(婦德)이란 이름으로 공공연히 행해지고 있었지만 이상적인 가정을 꿈꾸던 기독교신여성들은 “외인들이 흉볼지라도... 부인들도 방에 들어와 남편과 같이 편안이 앉아서 먹기로 작정하고... 또한 내외간에...서로 같은 말로 대접하기로 작정⁴¹⁾하는 등 뿌리 깊은 젠더의 서열화를 전복하기 위하여 부단한 노력을 기울였다.

36) 여탐정, 「혼인 안는 노처녀들의 생활」, 『신여성』, 1926년, 6월7일, 26.

37) 『윤치호 일기』에는 김활란의 성적추문을 언급한다. “오박사가 말하길 임영신이 전화해서 유억겸이 김활란과 불법적 관계를 하여 임신했다고 한다. 신흥우는 유억겸을 다치게 하기 위해 그런 이야기를 지어낼 만큼 교활하다.”(Jan 26, 1935) 유사한 내용은 같은 일기 1935년 2월 27일자 참조.

38) Matti Wilcox Noble, ‘The missionary Home,’ *The Korea Mission Field*(April, 1931). 73.

39) E. 와그너, 신복룡 역, 『한국의 아동생활』(서울: 집문당, 1999), 35.

40) 에너벨 메이저 니스벳, 한인수 역, 『호남선교초기역사』(서울: 경건, 2011), 202.

41) ‘교회통신’, 그리스도신문, 1901년 6월 20일자.

2. 박인덕의 혼인을 바라보는 시선들

신여성들이 직면한 딜레마에 교회의 윤리적 통제까지 더해진 트릴레마(trilemma)의 대표적인 사례가 박인덕의 혼인이다. '노래 잘하는 박인덕, 인물 잘난 박인덕, 연설 잘하는 박인덕'이라는 노랫말이 회자될 정도로, 그는 미래의 지도자로 촉망받았다.⁴²⁾ 그러한 기대를 저버리고 교회가 허락하지 않는 혼인을 선택하였다. 의심쩍은 구석이 많았던 혼인이었던 탓에 축복은커녕 사회적으로 추방당했다. 훗날 자서전에서 회고한 당시의 트릴레마이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혼인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었으나 이혼한 남자와 혼인하는 것에 대해 교회는 몹시 반대하고 있었고 그렇게 혼인하는 사람은 사실상 거의 사회에서 추방당하는 셈이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내가 사랑하고 봉사하는 교회와 하나님에 대한 충성심 사이에서 마음이 찢어지는 듯했다. 교회는 ‘안된다고 했고 내 마음은 ‘해야 해’라고 말하고 있었다.”⁴³⁾

그의 회고와 달리, 당시 교회법은 이혼한 자와의 재혼을 금지하거나 정죄하지 않았다. 그의 혼인에 쏟아졌던 비난은 이혼남과의 재혼 탓이 아니라 당대 기독교가 부단히 단절하고자 했던 전통혼속의 그물망에 얽혀있던 그의 착종된 혼인에 기인한다. 그의 배우자는 재혼을 위해 조강지처와 이혼하였다는 풍문이 무성했다. 앞선 본바와 같이 조혼한 남성지식인들은 “반려자로 지낼 아내는 글을 알아야하며 결혼은 서로의 사랑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⁴⁴⁾는 명목으로 신여성과의 로맨스를 꿈꾸며 조강지처를 외면하는 경우가 허다하였다. 진보와 평등의 근대적 이상을 꿈꾸던

42) '제주 있고 인물 잘나고 좋은 건강을 가진 박인덕 여사, 동아일보, 1926년 1월 27일자

43) 박인덕, 앞의 책, 84.

44) 김정옥, 앞의 책, 88.

남성지식인의 비인간적이고 반근대적인 현실이었다.

이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은 기독교 공간에서 터져 나왔다. YMCA의 중심인물이었던 홍병선 목사는 “부모가 처를 강제로 취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수년을 동거해 놓고 심지어 자녀까지 있는 부인을 버리려함은 축첩보다 악한 죄”⁴⁵⁾라고 맹비난을 하였다. ‘조혼한 부인을 버리는 악한 죄’의 혐의가 있는 박인덕의 혼인은 마땅히 신앙공동체로부터 매장될 수 있는 사안이었다.

박인덕의 혼인이 비난받았던 또 다른 이유는 중혼 혐의이다. 그의 배우자는 유명한 기생을 첩으로 들인 추문의 당사자였다. 당시는 “중산층 이상의 남자들 중 많은 사람들이 한두 명의 첩을 두어 이중살림을 하는”⁴⁶⁾ 것은 당연한 일이고, 아침·밥과 저녁·죽을 먹을 정도의 필부(匹夫)라면 으레 첩을 두는 것이 일상 풍경이었기 때문에⁴⁷⁾ 소문난 부호였던 그의 축첩은 당시의 윤리적 잣대로 견주어보면 유별난 추문은 아니었다. 그러나 신앙인이라면 평가는 달라진다. 배재학당 출신인 그는 기독교인이었으면서도 교회의 가르침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다.⁴⁸⁾ 축첩여부가 성도(聖徒)와 외인(外人)을 가르는 기준이 된 기독교 혼인윤리의 잣대로 보면, 성도인 박인덕은 사실상 이중혼인상태인 자와 혼인을 도모한 공모자인 셈이었다. 요컨대 그의 혼인은 전통혼속과의 단절은커녕 오히려 적극적으로 행함으로써 기독교의 혼인윤리를 위반한 죄를 지었던 것이다.

비단 교회만이 박인덕의 혼인을 문제 삼은 것은 아니다. 사랑지상주의자 신여성들의 비난도 만만치 않았다. 문제의 소지가 다분한 혼인을 감행

45) 홍병선, 조선기독교청년회, 『청년』1928, 3.

46) 다니엘 기포드, 심현녀 역, 『조선의 풍속과 선교』(서울: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1995), 43.

47) 제국신문, 1901년 1월 31일자.

48) 박인덕, 앞의 책, 84.

한 이유가 배우자의 경제력 때문이라는 풍문⁴⁹⁾은 연애투사들의 울분을 사기에 충분하였다. 그는 자서전에서 “하나님께서 여권을 만들어 주셨지만 사랑이 너무나 간절히 나를 부르고 있”기에⁵⁰⁾는 혼인을 선택했다고 밝혔지만, 그의 배우자가 대단한 부호라는 사실은 그의 진정성을 손상시켰다. 1920년대는 식민지에 걸맞지 않게 소비문화가 확산되었고, 물질 기반이 취약한 식민지 청년들의 좌절은 깊었다. 이수일과 심순애의 사랑이야기로 알려진 변안소설 『장한몽』⁵¹⁾의 폭발적인 인기와 “다이아몬드에 맘이 변하여, 반기어 타지마라 신식 자동차...”⁵²⁾라는 창가 가사에는 돈과 사랑사이를 부유하던 청년들의 불안감이 투영되어있다. 배금주의에 물들어가는 세대에 대하여 기독교 매체는 “배금숭배의 허영에 들떠서 결혼했다가 성욕의 열정이 식고 숭배하던 금전이 다하면 애정은 증오로 변한다”⁵³⁾고 경고하였다. 양 극단에 서있던 연애투사들과 보수적 신앙인들은 물질이 중심이 된 혼인의 비윤리성을 비판하는 것에는 한목소리를 내었다.

3. 박인덕의 착종된 혼인생활

교회가 반대하고, “어머니도 안 오시고 가까운 친구들조차 참석하지 않은 장례식 같은”⁵⁴⁾ 혼사를 감행한 대가는 혹독하였다. 어렵게 얻은 유학

49) 당시 소설 속의 인물이 실제 누구인지를 추정한 글에는 이광수의 『재생』은 박인덕이 모델이라고 주장한다. 여주인공 순영은 뛰어난 재원으로 여학교에서 선교사 p부인을 만나 자기희생 정신을 배우고 삼일운동에 참여하였지만 후에 배금주의적 풍조에 빠져 모진고통을 겪는다. 심생, 「소설에 쓰인 인물들은 누구들인가」, 『별건곤』, 1927. 1.

50) 박인덕, 앞의 책, 86

51) 오자키 고요, 조중환 변안, 『장한몽』(서울: 유일서관, 1913)

52) 이상준, 『朝鮮俗曲集』(경성: 삼성사, 1929), 10.

53) 근곡, 「결혼 전 청년남녀를 위하여」, 조선기독교청년회, 『청년』, 1923, 68-71.

54) 박인덕, 앞의 책, 86 - 91

의 기회를 잃은 것은 물론이고 자신을 아낌없이 지지해주던 스승과 친구 들마저 외면했다.

평등한 부부관계를 전제한 연애결혼은 여성해방의 가장 확실한 지표로, 당시 급변하는 여성의식을 반영하고 있었다. 그러나 완고한 통념과 구조적 문제로 인해 좌절되는 경우가 허다하였다. 박인덕의 여성주체 의식이 원칙론적이고 추상적인 차원을 넘어 구체화된 것은 혼인이란 변곡점을 통해서이다. 봉건적 굴레에서 비교적 자유로웠던 그가 혼인을 통해 가부장적 그물에 갇혔다. 그의 시선에 포착된 결혼생활의 문제점은 “모든 것이 남성을 편하게 하기 위하여 만들어 놓은 남성 본위의 조선사회제도”⁵⁵⁾에 기인하고 있었다. 미션여학교와 교회에서 “창조주인 하나님의 눈에는 모두가 가치있는 사람”⁵⁶⁾이라는 존재론적 평등성을 배우고 자랐지만, 혼인을 통해 담론과 실제 사이의 엄청난 간극을 체험한 것이다.

주변의 기대를 저버리고 감행한 결혼생활은 신여성들이 봉착한 딜레마를 여실히 보여준다. 미션여학교에서 근대교육과 신앙교육을 받은 박인덕은 “아내로서의 전통적인 자리도 지키지 않으면서, 첩이나 혼외 관계를 허용하지 않았다.”⁵⁷⁾ 근대와 전근대가 어정쩡하게 혼재된 결혼생활이 파국으로 치달는 것은 시간문제였다. 게다가 혼례를 올린 지 한 달 만에 파산한 남편을 대신하여 생활전선으로 뛰어든 박인덕은 “하루 14시간 노동으로 몸은 피로할 대로 피로하고 마음 또한 그 이상으로 피곤하고 우울하고 괴로웠고...지옥에 사는 것”⁵⁸⁾과 같은 나날을 지냈다. 배우자 폭력과 시집의 무시에 더하여 어리석은 선택에 대한 자괴감으로 스스로 목숨을

55) 박인덕, 「6년 만의 나의 반도, 아메리카로부터 돌아와서 여장을 풀면서 옛 형제에게」, 『삼천리』, 1931. 11

56) 박인덕, 앞의 책, 150.

57) 박인덕, 앞의 책, 139.

58) 박인덕, 「파란많은 나의 반생」, 『삼천리』1938. 11.

꿇고자 한 그 순간에 극적으로 ‘거듭남’을 체험한다. “아홉이 천사와 씨름을 하는 성경 속의 장면을 떠올리며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비로소 그간 가부장적 문화에 의해 휘둘리던 삶으로부터 탈주할 수 있었다.⁵⁹⁾ 역설적이게도 근대와 전근대가 착종된 혼인생활이 그를 진정한 ‘신앙인’이자 ‘여성주체’로 거듭나게 한 장치였던 셈이다.

IV. 박인덕의 주체적 이혼

기독교와 근대교육을 통해 인권의 존엄성을 깨우쳤던 박인덕은 착종된 혼인생활을 지속할 수 없었다. 봉건의 질곡에서 탈주하는 방도를 미국유학에서 찾은 그는 산재한 장애물에도 불구하고 출국을 단행함으로써, 자신의 미래는 자신이 결정한다는 굳건한 의지를 보였다.⁶⁰⁾

“나를 살리자. 아랫돌을 빼 윗목에 막고 윗돌을 빼 아랫목에 막는 밤낮 마찬가지로인 공허한 생활에서 뛰쳐나가자.’ 결국 이렇게 결단을 짓고 여장을 꾸려 미국으로 떠났던 것입니다. 남들이야 별별 소리를 하거나 말거나 나에게는 천당이었습니다. 무거운 쇠사슬이 내 발목에 항상 얽혀 내 걸음을 방해하던 것이 툭 끊겨 나간 듯 했습니다.”⁶¹⁾

일부중사, 현모양처의 길만이 허락되었던 조선을 떠나 서양에서 목격한 것은 일상에서 구현된 남녀평등문화,⁶²⁾ 영국의회에서 목격한 여성정

59) 박인덕, 앞의 책, 92.

60) ‘미국유학떠나는 박인덕여사, 여성교육에 힘쓸 작정’, 조선일보, 1926년 6월 26일자.

61) 박인덕, 「파란많은 나의 반생」, 『삼천리』1938. 11.

62) 박인덕, 「六年만의 나의 半島, 아메리카로부터 도라와서 旅裝을 풀면서 넷 형제에게」, 『삼천리』 제3권 제11호, 1931. 90.

치인의 진취적 사상,⁶³⁾ 그리고 덴마크의 국제민족고등학교의 “아주 건전하고 독립적이고 평등한 남녀관계”⁶⁴⁾였다. 그러나 6년 뒤 귀국 길에서 그의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여전히 굴종적인 여성의 삶이었다. 결혼 이전의 그는 “사람의 본의를 저버리고 남자들의 뜻에 따라 살아온 예측적 삶”을 살아온 여성자신에게서 문제의 원인을 찾았으나,⁶⁵⁾ 서양을 경험한 후에는 “남성 본위의 조선사회제도”⁶⁶⁾의 개혁에 눈을 뜬다. 귀국 후 그가 추진한 중산층 여성운동,⁶⁷⁾ 농촌운동,⁶⁸⁾ 청년교육운동들을 관통하는 공통 정신은 여성 예측화를 온존시키는 비/가시적 구조 변혁의 윤리에 기초하고 있었다.

이 글은 그가 관여한 개조/개혁 활동 중 그의 이혼청구소송 사건을 가장 혁명적인 것으로 보고 이를 주목한다. 그가 이혼소송을 제기한 1930년 초는 1920년대의 아이콘이었던 신여성이 추락하고 구여성이 재조명되고 있었다. 식민지적 모순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나혜석 등 일부 선각자들의 급진적인 성적 자율권 행사는 세상의 반감을 고조시켰다. 신여성은 허영이 가득한 자로 매도되고, 순종적인 구여성이야말로 훌륭한 아내로 칭송받았다.⁶⁹⁾ 이러한 배경에서, 귀국 후 그의 행보는 신여성을 길들이려는 세력의 적절한 마녀사냥감이었다.

63) 박인덕, 앞의 책, 160.

64) 박인덕, 김세환 외 역, 『호랑이 시』(서울: 인덕대학교, 2007). 62-63.

65) 박인덕, “현대조선과 남녀평등문제”, 동아일보, 1920년 4월 2일자, 7면

66) 박인덕, 「6년 만의 나의 반도, 아메리카로부터 돌아와서 여장을 풀면서 옛 형제에게」, 『삼천리』, 1931.11

67) 1932년 12월 박인덕은 조선직업부인협회를 개편하여 중산층 여성운동의 거점으로 삼았다.

68) 박인덕, 『농촌교역지침』(경성: 농촌여자사업협찬회, 1935). 참조

69) 愚石, 「惡魔의 戀愛, 新家庭生活破綻記, 新女性들 그는 왜 시집살이를 못하나」 『별건곤』33호, 1930, 10, 1. 132-133

“여사는 지금으로부터 6년 전에 미주에 건너가서 그간 컬럼비아, 웨슬리언 두 대학을 마치고 구미... 만유하다가 얼마 전 귀국했다. 무슨 사정인지는 알 수 없으나 ... 그의 시집인 아현리에는 밭그림자도 보이지 않고 시내 필운동 양주삼 목사 댁에서 체류하며 ...면회도 일체 사절한다. 침단여성의 최첨단 식!”⁷⁰⁾

유학생활을 통해 확고해진 평등의식과 실천은 관습적 윤리지침과 충돌 하였으며, 그의 혼인관계는 파국으로 치달았다.⁷¹⁾ 온 나라의 관심거리가 된 그의 별거와 이혼 소송은 불행한 한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다. 선교사 험버트는 불평등한 조선 남녀관계의 사례로 이혼을 언급한다. 죽음에 이르는 폭력에도 여성은 이혼을 제기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⁷²⁾ 여성의 이혼 청구권이 허용된 것은 2차 민사령 개정(1922)부터이다. 법적 권리가 생기자 이혼을 청구하는 여성들이 급증했다. 기독교는 이를 신여성들의 무분별한 서구이혼문화의 모방 탓으로 돌렸다.⁷³⁾ 그러나 실제 통계를 보면 이혼청구자 대부분은 조혼한 구여성이나 하층계층으로서, 무상노동과 가정폭력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합법적인 방도를 찾은 결과였다.⁷⁴⁾ 나혜석처럼 떠들썩하게 이혼한 몇몇 이 외에는 신여성의 이혼청구는 오히려 드문 편이다. 근대의 세례를 받은 지식인들은 “이혼은 어디까지든지 자

70) 일기자, 『阿園不歸家の 침단여성』, 『별건곤』, 1931. 11.

71) ‘돌아는 오고도 안 돌아오는 수수께끼’, 매일신보, 1931년 10월 13일자

72) 험버트, 앞의 책, 356. 조선에서도 혼인관계의 해소 현상이 없지는 않았으나, 국법에 이혼이 없다고 할 정도로 이혼억제 정책의 효력은 강력했다.

73) 사설, ‘주목할 이혼증가’, 동아일보, 1924년 3월 26일자. ‘사설: 현하의 이혼문제(상)’, 동아일보, 1925년 2월19일자; ‘이혼으로 본 세대’, 동아일보, 1929년 10월 25일자; ‘사설: 리혼문제의 원인과 예방’, 기독교신보, 1926년 6월 13일자, ‘사설: 리혼문제의 원인과 예방II’, 기독교신보, 1926년 7월 7일자, ‘사설: 리혼문제의 원인과 예방III’, 기독교신보, 1926년 7월 14일자

74) 류승현, “일제하 조혼으로 인한 여성범죄”, 『여성: 역사와 현재』, 국학자료원. 2001 참조

유”라며, 국가의 법률은 이에 대해 아무런 간섭을 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 하지만⁷⁵⁾ 오로지 이혼을 욕망하는 남성들에게만 해당되었다. 이미 혼인 당시 심각한 마녀사냥을 경험했던 박인덕은 여성의 이혼청구에 대한 세상의 편견을 접하고 또 한번의 사회적 추방을 예견한다.

“기독교인은 이혼을 인정하지 않았다. ... 기독교인에게 비난을 초래하는 어떤 행동도 하고 싶지 않았다. 게다가 내가 고국으로 돌아와서 처음으로 하는 일이 남편과의 이혼이라면 나는 지식인 사회에 감화를 주기는커녕, 세평도 안 좋아져 아마 입회조차도 못할 수도 있다. 미국에도 나쁜 소문이 전해질 수 있었다.”⁷⁶⁾

결격사유가 분명한 배우자와의 이혼이 근대의 혼인윤리의 잣대로는 “정당하고 도덕적인 요구”였지만,⁷⁷⁾ 남편의 축첩과 폭력을 용인하던 세간의 눈에는 신여성의 이기적인 행위로 비취질 뿐이었다. 이혼 후 그는 예견대로 추방되었다. 혼인파탄의 실질적 원인제공자인 남편에게 오히려 거역의 위자료를 지불하고 자녀양육권까지 빼앗기는 등 매우 부당한 대우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가부장적 질서를 교란시킨 죄의 대가는 몹시 가혹하였다. 가장 큰 비난의 화살은 자녀를 포기하면서까지 이혼을 감행한 냉정한 모성을 겨냥했다. 모성애라는 질긴 동아줄로 여성을 포박하던 가부장사회에서 ‘양육권 포기’는 그 누구로부터도 이해받지 못할 천인공노의 패륜으로 표상되었다.⁷⁸⁾ 그 어떤 직장도 구할 수 없었고, 주일학교

75) 주요섭, 「결혼생활은 이러케 할 것-혼인의식부터 자유롭게, 『신여성』, 1924, 113-115.

76) 박인덕, 『구월 원숭이』, 188-189.

77) 박인덕, 앞의 책, 188.

78) 성복학인, 「박인덕 공개장-이혼소동에 관하여 그의 태도를 박(駁)함, 『신여성』1931. 12; 紫蝦洞人, ‘自稱先覺者 朴仁德을 埋葬함-권리를 주장하라거든 의무도 나누어야 된다’, 每日申報社, 1931년 10월 22일자; 紫蝦洞人, ‘自稱先覺者 朴仁德을 埋葬함-자녀는 남자에게만 자녀가 되는 것인가’, 每日申報社, 1931년 10월 23일자; ‘조선이 낳은

교사직에서도 쫓겨났다.⁷⁹⁾ 설상가상으로 이혼과정에 도움을 주었다는 것만으로 황당한 추문에 휘말리게 되자, 진보적 지식인과 신앙적 동력자들은 점차 그를 기피하기 시작하였다. 남자의 성적문란함은 용납하면서, 단지 남성의 도움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성적추문의 혐의를 받는 것은 성(性)에 따라 차등적 윤리가 적용되던 당대 여성의 숙명이었다.

“박인덕 여사의 이혼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란 지상토론에는 남편에게 위자료를 지불한 역사상 초유의 사건을 접한 기독교 엘리트들의 분노가 반영되어있다. 한때는 박인덕의 이혼을 도왔던 조선감리교회 총리사 양주삼은, 세간의 부정적 시선에 전향되어 “이혼을 감행한다면 장래 활동에도 악영향을 끼쳐 기성종교단체 안에 들어와서는 활동할 수가 없다”며 추방을 경고했다. 조선주일학교연합회 회장 김창준 목사는 “당분간은 선두에 나서지 말고 숨어서 근신”할 것을 권하며, 느닷없이 재혼을 언급하며 “재혼은 음행이므로 신앙의 이름으로 정죄” 대상임을 덧붙인다. 종교적 수사를 동원하여 그의 이혼을 단죄하는 행위는, 간통현장에서 발각되어 돌로 죽일 수 있는 여성까지도 정죄하지 않았던 예수의 행위에 비추어 볼 때, 복음적이지도 윤리적이지도 않다.

사회적 추방을 예견하면서도, 박인덕은 “많은 여성들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이혼청구를 결심”하였다고 말한다.⁸⁰⁾ 이혼 후, 지독한 비난과 혐오에도 불구하고 신앙적 소명을 실천하기 위하여 부단히 교회 문을 두들기고,⁸¹⁾ 전문직여성클럽을 조직운영하며⁸²⁾ 미국자선단체의 기금을 마련하여 ‘농촌여성과 아이를 위한 공동체’ 및 ‘마을협동조합’⁸³⁾을 조직하는 등

현대적 노라 박인덕, 『신동아』1931년 12월호; 「돌아오지 아니하는 어머니」, 『제1선』1권5호, 1932. 7면

79) 박인덕, 앞의 책, 191-193.

80) 박인덕, 앞의 책, 165.

81) 박인덕, 앞의 책, 223.

82) 박인덕, 앞의 책, 194.

열성적으로 사회활동을 추진하였다. 그의 부단한 사회/교육 사업에 대한 열망은 때로는 시대적 질곡에 갇혀 착종되곤 했다. 식민권력에 협조한 대가로 덕화의숙을 설립한 대신 식민권력의 나팔수가 되어야 했으며⁸⁴⁾, 해방 후 미군정과의 협상으로 미군의 한반도 주둔의 정당성을 선전⁸⁵⁾하는 대신 학교설립에의 꿈을 실현할 수 있었다. 민족주의 렌즈로 보면 공과(功過)가 뚜렷한 식민지 지식인으로서의 그의 활동에 대해서는 또 다른 연구가 필요하다.

다만 여기에서는 서구를 통해 존재론적 평등을 경험한 그가 한국여성과 그 자신을 위해 봉건적 가부장주의의 속박으로부터 탈주한 지점은 어디였는지에 주목하였다. 이상에서 본 것처럼 당대 기독교 가부장주의의 강력한 압박에도 불구하고, 한국역사상 최초로 아내가 위자료를 지불하고 양육권 포기한 이혼사건을 주도하였다. 성·사랑·혼인에 대한 최종 결정권자는 자기 자신이라는 인식을 환기시킨 것이다.⁸⁶⁾ 부당한 혼인관계에 대한 법적 무효를 끌어냄으로써 기존의 젠더질서의 근간을 흔들어 새로운 질서를 세우는 주체로 설 수 있었다. 그의 이혼은 한편으로는 노골적인 비난과 조롱거리가 되어 여성 통제를 위한 반면교사가 되기도 하였지만, 또 다른 면에서는 혼인관계에서 발생한 폭력과 비인격적 대우를 받던 여성들에게 합법적 저항이라는 새로운 길을 제시한 선구이기도 했다. 그의 결단은 가부장의 권한으로 당연히 되어온 가정폭력과 물리적 정신적 학대를 고발하고 자신의 권리를 되찾기 위해 법정투쟁의 길을 열었던 열쇠였다.

자신에게 허용된 삶과 자신이 선택하고자 하는 삶 사이의 간극을 때로

83) 박인덕, 앞의 책, 201.

84) 박인덕, 『호랑이 시』, 71-72

85) 박인덕, 『구월 원숭이』, 278-279. 282

86) 박인덕, 「태평양 삼만리 가는 길」, 『신인문학』 제3권 2호, 청조사, 1936.3.

는 신앙의 힘으로 때로는 여성주체의식의 실천으로 넘어섰다. 이글에서는 가부장주의에 순치화된 여성들에게는 보이지도 않았던 새로운 길을 만들며 가부장적인 관행에 도전한 그 힘을 바로 그의 ‘기독교’신여성’의 정체성에서 찾고자 했다. 신앙적 신여성이란 정체성은 성, 사랑, 혼인에 관한 급진적 이상을 실천했다는 이유로 행려병자로 죽거나 혹은 은둔자로 살았던 당대의 신여성들과는 다른 길을 선택하게 한 토대였다.

V. 맺음말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성과 권리에 있어서 평등하다”고 명시한 세계인권선언보다 훨씬 오래 전, 믿음의 선조들은 이마고 데이(Imago Dei)로 창조된 인간의 존엄성을 고백하였다. 구약성서의 이마고 데이와 근대 인권선언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존엄하다고 천명하지만, 모든 이들이 평등한 인간적 권리를 누리고 있는 것은 아니다. 특정한 인간들을 배제하는 불평등의 구조는 위계적 가부장주의와 깊이 연동되어 있다. 근대 한국기독교 공간은 신앙적 차원에서도, 근대적 이념에도 위배되는 가부장적 혼인 윤리를 하나님의 질서로 신성시하면서 불평등한 젠더 구조를 온존시켜 왔다.

기독교신여성 박인덕은 신앙적 체험을 통해 이마고 데이(imago dei)로서의 정체성을 깨닫고, 근대교육을 통해 여성주체임을 자각한 후, 젠더불평등의 가부장적 혼인윤리를 위반하였다. 여성의 이혼소송 제기가 법적으로는 허용되었다고 하나 실제로는 드물었던 당시 사회에서, 부당한 권력을 행사하던 남편에게 위자료를 지불하며 이혼을 청구한 것은 한국 역사상 최초의 사건으로 과히 혁명적이었다. 요컨대 그의 이혼청구는 가부장주의에 순치되기를 거부하며 변혁과 전복의 윤리를 실천한 것으로 의

미화할 수 있다. 비록 그 자신은 혹독한 대가를 치렀지만 한국사회의 젠더지형을 바꾸어 놓았기 때문이다.

이 글은 그동안 신여성연구에서 간과되어 온 기독교신여성에 주목함으로써 신여성연구의 범위를 확장하고자 하였다. 지난 20여년은 신여성 연구의 르네상스라고 할 정도로 다양한 학문분야에서 신여성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그런데 그간의 연구는 근대 한국의 페미니즘을 19세기 미국사회의 급속한 미디어의 발달과 서구 소비문화의 영향을 받은 초기 글로벌 페미니즘의 한 부분으로만 파악하는 경향이 농후했다. 이로 인해 신여성의 등장에 주요한 배경이 된 기독교의 역할과 그 영향력은 간과되었다. 기독교는 신여성의 등장 이전인 19세기 말부터, 여성 억압적인 전통악습의 철폐와 여성교육의 필요성을 주창하면서 젠더 문제를 공론화하였다. 기독교 공간을 통해 여성주체들은 가부장적 윤리에 도전하는 저항과 변혁의 에너지를 충전할 수 있었다. 비록 기독교 가부장주의의 세력화로 인해 초기의 해방적 의미는 점점 퇴락했지만, 여성교육선교가 여성의식의 고양과 기독교신여성이라는 새로운 주체의 탄생을 예비한 사실은 간과될 수 없다.

또 다른 한편, 이 글은 기존의 기독교여성 연구와는 다른 지점에서 기독교여성연구의 지평을 확장하고자 하였다. 주지하다시피 인물연구는 늘 부분적일 뿐만 아니라 논쟁적일 수밖에 없다. 어느 렌즈를 착용하느냐에 따라 다른 이미지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 동안의 기독교여성 연구는 대체로 민족담론의 자장에 갇혀있었다. 민족주의의 앵글로는 항일 혹은 친일 행적만이 부각되기 때문에, 이 회로에 갇히게 되면 식민지 권력 이외의 지배담론과 협력하고 갈등하고 저항하는 가운데 형성된 복잡다단한 삶의 결들을 놓치게 된다. 이러한 문제의식 위에서 기독교신여성 박인덕을 재조명하였다. 가부장적 시선으로 보면 그는 가부장적 윤리 규범을

위반한 발칙한 아내이자 비정한 모성이지만, 여성주의의 렌즈로 보면 전혀 다른 인물이 된다. 이 글은 여성윤리의 렌즈로 그가 기독교의 세례를 받은 거듭난 ‘신앙인’이면서도 기독교 가부장적 통제의 윤리망에 포획되지 않았던 여성주체였고, 근대의 세례를 받은 ‘신여성’이면서도 연애담론의 희생자이자 능동적 행위자였음을 조망하였다. 그리하여 한국교회의 공식서사에서 잊혀지고 왜곡된 한 기독교신여성의 혼인과 이혼 사건을 여성윤리의 자리에서 회수할 수 있었다. 기독교의 가부장적 혼인윤리와 경합하였던 한 기독교신여성의 삶의 자리를 조망하는 작업은 젠더 불평등에 대한 비판적 개입인 동시에 이마고 데이에 정초한 인간존중의 윤리를 제고하는 효과가 있다.

참고문헌

- 『기독교신보』, 『신학월보』, 『그리스도신문』, 『활천』, 『청년』, 『신여성』, 『별건곤』, 『동아일보』, 『우라키』, 『삼천리』
- 김정옥. 『이모님 김활란』. 서울: 정우사, 1977.
- 김활란. 『사이비 연애행동』. 『신여성』. 1933. 2.
- 박인덕. 『6년 만의 나의 반도, 아메리카로부터 돌아와서 여장을 풀면서 옛 형제에게』. 『삼천리』. 1931. 11.
- 박인덕. 『꿈을 깨자, 개성의 자각을: 녀자들이 자기라는 개성을 살리자』. 『동아일보』. 1926. 1. 3.
- 박인덕. 『나의 자서전』. 『여성』. 1939. 3
- 박인덕. 『남녀협동과 교제문제』. 조선기독교청년회. 『청년』4권7호. 1932. 6. 22.
- 박인덕. 『조선여자와 직업문제』, 『우라키』. 1928. 4.
- 박인덕. 『태평양을 다시 건지며』. 『삼천리』. 1936. 1.
- 박인덕. 『파란많은 나의 반생』. 『삼천리』. 1938. 11.
- 박인덕. 『세계일주기』. 경성: 조선출판사, 1941.
- 성북학인. 『박인덕 공개장: 이혼소동에 관하여 그의 태도를 박(駁)함』. 『신여성』 1931. 12.
- 스크랜튼. 『효혼의 폐단』. 『그리스도회보』. 1911. 3. 30.
- 신홍우. 『가정과 연애』. 조선기독교청년회. 『청년』2권7호. 1922.
- 이숙인. 『근대초기 '여권'의 유입과 유교의 재구성』. 『국학연구』 24집. 2014. 6
- 이숙진. 『초기 기독교의 혼인담론』.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한국 기독교와 역사』. 2010.
- 이숙진. 『한국기독교와 여성정체성』. 한들, 2006.
- 일기자. 『돌아오지 아니하는 어머니』. 『제1선』1권5호, 1932. 7.
- 조은·조성운. 『한말서울지역 첩의 존재양식-한성부 호적을 중심으로』. 『사회와 역사』 제65권. 2004. 5.
- Pahk, Induk., 김세환 외 역. 『호랑이 시』. 서울: 인덕대학교, 2007.
- Pahk, Induk., 최연화·채선수·허윤기 역. 『구월 원숭이』. 서울: 인덕대학교 출

관부, 2007.

기포드, 다니엘. 심현녀 역. 『조선의 풍속과 선교』. 서울: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1995.

애너벨 메이저 니스벳. 한인수 역. 『호남선교초기역사』. 서울: 경건, 2011.

Baird M. William. Should polygamists be admitted to the Christian Church (I, II, III), *The Korean Repository*. Sep., 1896.

Noble, W. Matti. The missionary home, *The Korea Mission Field*. April, 1931.

Pahk, Induk, *The Cock still Crows*. New York: Vantage Press, 1977.

Wagner, C Ellasue. *Kim Subang*. Nashville: Woman's Board of Foreign Mission M.E. Church, South, 1909.

논문투고일: 2014. 06. 30.

심사개시일: 2014. 07. 11.

게재확정일: 2014. 08. 09.

• 국 문 초 록 •

한국기독교는 초기부터 사회적 편입의 한 통로인 ‘혼인’에 대하여 다양한 윤리적 지침을 마련해 왔다. 근대기독교는 전통과 세속의 혼인문화에 대하여 ‘단절과 통제’의 윤리적 전략을 구사하면서 가부장적 혼인윤리를 정초한 반면, 기독교신 여성은 가부장적 윤리에 대한 ‘저항과 변혁’의 윤리를 실천하였다. 이 글의 목적은 기독교의 가부장적 윤리와 경합하는 가운데 한국의 젠더지형에 영향을 끼친 기독교신여성의 삶의 자리를 ‘혼인’의 렌즈로 조망하는데 있다. 구체적인 사례연구를 위하여 ‘기독교인’이었지만 기독교 가부장적 혼인윤리와 갈등하고, ‘신여성’이었지만 당대를 풍미했던 연애지상주의자와는 다른 행보를 걸었던 박인덕의 삶의 궤적을 추적하였다. 그를 연구사례로 선택한 것은 삼중지도와 여필종부가 여성의 주요덕목이었던 20세기 초반에, ‘여자이면서도’ 이혼을 주도적으로 결정함으로써 젠더불평등의 상황을 고발하고 젠더담론의 지형에 끼친 영향력 때문이다. 박인덕이 젠더불평등의 가부장적 혼인 윤리에 저항할 수 있었던 것은 신앙적 체험을 통해 이마고 데이(imago dei)로서의 정체성을 깨닫고 근대교육을 통해 여성주체임을 자각했기 때문이다. 근대 한국기독교는 가부장적 혼인 윤리를 하나님의 질서로 신성시하면서 불평등한 젠더 구조를 온존시킨 대표적인 공간이다. 기독교의 가부장적 혼인윤리와 경합하였던 한 기독교신여성의 삶의 자리를 조망하는 작업은 젠더 불평등에 대한 비판적 개입인 동시에 이마고 데이에 정초한 인간존중의 윤리를 제고하는 효과가 있다.

주제어: 기독교신여성, 이마고 데이, 근대교육, 박인덕, 가부장적 혼인윤리
